

경찰 淪落街단속 「구멍」

「기습情報」번번이 누설

연초등 잠적 어젯밤 1千91명 검거

미성년자가출을 유혹하고 각종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는 속칭 텍사스촌과 영계출입 밀집지역인 유랑가와 유랑가에 대한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나 번번이 「단속정보」가 사전에 누설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대 표적 우범지대인 유랑가와 유랑가 주변의 각종범죄와 불법영업부터 소탕해 나가겠다는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같은 업소와 관계공무원들과의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경찰청(청장 28일판 東大門구典農) 속칭 「588」지역과 영계출입 밀집지역 서울의주변의 유랑가5곳,城北구下月谷,城北구彌阿洞,江東구千戶洞,속칭 텍사스촌 8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서울시경의 「기습」단속반이 도착했을 때 유랑안 사창가의 경우 관할 용산경찰서가 1시간 전에 미리 자체단속을 하고 이어 영계출입 밀집지역에서 「단속정보」가 미리 새 포주 유랑가들이 이미 잠적해 버리고 없음을 경찰단속자체에 여러 번 전이 드린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포주나 업주 등 유랑행위 범1천19명을 검거, 이중

7백65명을 형사입건하고 1백66명은 즉시에 넘겼다.

또 10대유랑녀 10명 등 54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34명은 시립부녀기숙원에 보호조치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밤 전국적으로 심야퇴업소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8백

75개 위반업소를 적발 △ 26개업소는 허가취소 △ 2백82개업소는 영업정지 △ 1백57개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 퇴폐영업 44개소 △ 시간외영업 72개소 △ 투숙가 1백45개업소 등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경의 「기습」단속반이 도착했을 때 유랑안 사창가의 경우 관할 용산경찰서가 1시간